

제 292호 · 2015년 1월 21일

미래전략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

총괄 이성우 실장, 감수 길광수 감리위원

# KMI

## 국제물류위클리

K O R E A   M A R I T I M E   I N S T I T U T E

### | CONTENTS |

#### 물류 정책·사업동향

1. 저유가 영향으로 에너지개발 관련 국제 프로젝트 물류시장 위축 전망
2. 멕시코, 미주대륙의 신흥물류시장으로 부상
3. UPS, 유럽에 소매 및 하이테크 계약물류시설 3곳 증설
4. GAC Samudera, 인도네시아에 콜드체인 물류센터 개소

#### 물류시장동향

1. 터키, 아제르바이잔에 카스피해 운송 위한 합작기업 설립 제안
2. 페루, 5개 항만 개발위해 5억 6천 9백만 달러 투자



한국해양수산개발원  
KOREA MARITIME INSTITUTE

## 물류정책 · 사업동향

## □ 저유가 영향으로 에너지개발 관련 국제 프로젝트 물류시장 위축 전망

- 2014년에 이어 2015년 들어 저유가 행진이 이어지면서 국제 석유가스 개발 관련 대형 프로젝트의 위축과 이로 인한 에너지 개발 관련 프로젝트 물류 시장의 위축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음
  - 세계에너지위원회가 발간하는 월간 *World Energy Focus* 신년호에 따르면, 석유·가스 등 에너지 자원에 대한 대규모 투자계획(자본적 지출 또는 Capex<sup>1)</sup>)은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영향 받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일관성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으나, 최근 글로벌 저유가 추세에서는 충격이 워낙 커서 기존 상황에 변화가 예상된다고 전망하고 있음
    - \* 즉 현금 흐름 압박 등의 요인으로 자본적 지출의 규모 축소 외에 에너지 회사들이 다른 선택지를 찾기 어렵다는 것임
    - \* 에너지 전문 정보회사 EnerCom의 분석에 따르면 석유 탐사 및 생산 관련 서비스 26개 회사 중 2015년 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회사는 단 4개에 불과함<sup>2)</sup>
- 세계에너지위원회는 특히 이와 같은 자본적 지출의 축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북미, 캐나다, 북극해 등을 꼽고 있음
  - 북미의 셰일 원유, 캐나다의 오일 샌드, 북극해 석유가스 개발은 그 자체로 개발 공정이 복잡하거나 악천후 등의 여건에서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비용이 요구되는 구조임
    - \* 실제로 미국 코노코필립스(ConocoPhillips)는 지난해 연말 2015년도 자본 예산을 20%(약 30억 달러 규모) 삭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, 이외에 캐나다의 버밀리언(Vermillion) 에너지 및 캐나다인 오일샌드 등 샌드오일 회사들도 전년 대비 20% 이상의 자본적 지출을 감축한 바 있음
  - 북극해 석유가스 자원개발의 경우, 2014년 하반기까지만 해도 알래스카 북극해와 러시아 북극해(야말반도)에서의 가스 개발이 경쟁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어 왔으나 2015년 들어 더 이상의 추가적인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음
  - 세계에너지위원회는 액화천연가스(LNG), 가스액화물(GTL) 등 유가에 민감하게 영향받는 에너지 자원 개발 분야도 상대적인 개발비용 상승으로 인해 향후 개발이 위축될 것으로 예견
- 한편 최근 코스코 싱가포르 등 일부 선사들이 석유개발용 선박에 대한 신조 계약을 취소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음
  - 코스코 싱가포르는 영국계 ATP 석유가스에 석유시추선 Octabuoy hull 및 topside module의 건조를 발주해 건조해왔으나 최근 싱가포르주식거래소에 선박계약 취소를 공시
  - 코스코 싱가포르는 이와 같은 석유시추 선박건조 취소 이유에 대해, 전문화된 설계의 어려움

1) capital expenditure 또는 줄여서 capex로 표시.

2) <http://www.oilandgas360.com> 참조



외에 옥타부이의 구매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, 그리고 최근 수개월간 원유가의 폭락으로 석유개발 업체들이 신규 주문을 줄이고 있어 추후에도 고객을 찾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고 있음

- 코스코 싱가포르측은 이와 같은 계약 취소로 약 6천7백만 달러의 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음
- 옥타부이식 석유시추선은 반잠수 부유식으로 시추, 생산, 저장이 가능한 석유시추선임
- 최근의 글로벌 저유가 행진이 최소한 다음 OPEC 회의가 열리는 시점인 2015년 6월까지 이어지리라는 전망 하에서 글로벌 에너지 탐사개발 관련 메가 프로젝트의 축소는 당분간 이 분야 프로젝트 물류 시장의 위축을 동시에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
- 특히 한국과 관련해서는 북극해 지역 석유가스 개발 프로젝트의 지연 등으로 북극항로 상용화 및 북극항로 이용 시범사업 확대 노력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됨

자료 : [www.ihsmaritime360.com](http://www.ihsmaritime360.com), 2015.1.13.

박성준 전문연구원 (☎ 02-2105-2973, [sjpark@kmi.re.kr](mailto:sjpark@kmi.re.kr))

## □ 멕시코, 미주대륙의 신흥물류시장으로 부상

- 멕시코가 지리적 이점 및 생산업 활성화로 인해 신흥시장 종합 물류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  - 2015년 신흥시장 종합물류 인덱스(Agility Emerging Market Logistics Index<sup>3)</sup>)에서 중국이 1위를 차지한 가운데, 미주대륙 신흥시장들은 지속적으로 강세를 유지하고 있음
  - 2014년 2위까지 상승하였던 브라질은 인프라 부족 및 내재적 경제문제 등으로 인해 약간 주춤했으나, 전체 순위 3위로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음
  - 또한 같은 미주대륙의 신흥시장인 멕시코는 제조업 붐 및 외국인 투자, 대미무역 증가에 힘입어 작년과 같은 9위를 유지함
- 세계최대 소비시장인 미국과 인접한 멕시코는 지역화 및 니어소싱의 이득을 가장 크게 보고 있음
  - 2014년 멕시코 무역의 80%이상이 미국과 이뤄졌으며, 이러한 대미의존도는 점차 심화되고 있음
  - 북미자유무역협정(NAFTA)의 최신 통계자료에 따르면, 2013년 같은 기간 대비 2014년 미국의 대 멕시코 수출금액은 5.2%이상 증가했고, 수입금액은 8.5% 증가했음
- NAFTA 무역증가는 자동차 산업 약진과 멕시코의 빠른 경제성장에 일부 기인했다고 볼 수 있음
  - 도요타 자동차는 멕시코 내수 및 수출시장을 겨냥, 1억 USD를 투자해 2015년 상반기에 파트너사인 멕시코 마쓰다 공장에서 신형 자동차를 생산할 것이라고 발표했음
  - 또한 멕시코는 과거 75년간 국유산업이었던 유류산업을 점차 개방, 석유탐사 분야 및 정유, 판매, 발전 및 천연가스 분야 등에 민간기업의 투자를 허용하고 있음
- 이러한 변화를 기반으로 세계적인 물류기업들이 멕시코 물류산업에 투자하고 있음
  - 글로벌 자동차 운송회사인 발레니우스 빌헬름센 로지스틱스(Wallenius Wilhelmsen Logistics, WWL)는 자동차 처리센터를 확장하기 위해 멕시코의 Carlogistics를 인수했음
  - 유센로지스틱스(Yusen Logistics)는 멕시코 내 수출입 복합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'Mexico Border Cargo Management(BCM)'를 시작했음
  - 카타르 항공 역시 도하, 카타르, 멕시코 시티 간 자동차 부품, 소비가전, 석유화학제품, 부패성 제품 및 의약품 등의 제품을 주 2회 운송하는 서비스를 시작했음

자료 : www.transportintelligence.com, 2015.01.19.

전형모 전문연구원 (☎ 02-2105-2817, hmjeon@kmi.re.kr)

3) Agility 신흥시장 물류 인덱스(Agility Emerging Market Logistics Index): 글로벌 물류기업 Agility와 영국의 물류 시장 조사업체 TI(Transport Intelligence)가 2010년부터 매년 신흥시장에 대한 물류시장 발전 정도를 1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발표하는 물류 인덱스, 시장의 성장매력도, 시장적합성, 시장연계성 등 3가지 요인 평가(KMI 국제물류위클리 제 258호, 2014.5.28)

## □ UPS, 유럽에 소매 및 하이테크 계약물류시설 3곳 증설

- UPS는 소매 및 하이테크 분야 고객들의 수요 증대에 부응하여 유럽 3개 지역에 계약물류시설을 증설하기로 함
  - 이들 물류시설들은 각각 독일의 크레펠트(Krefeld)와 부츠바흐(Butzbach)와 네덜란드의 펜로(Venlo)에 위치함



자료 : supplychain247.com, 2015.1.24.

- UPS는 현재 전세계에 총 596개의 물류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, 전체 규모는 약 300만 m<sup>2</sup>임
  - UPS는 최근 북미에 4개의 시설(약 11만 m<sup>2</sup>)을 추가한데 이어 이번 증설을 통해 글로벌 공급 사슬망에 약 2만 5백 m<sup>2</sup> 규모<sup>4)</sup>의 물류시설을 추가하게 됨
  - 이들 물류시설에서는 창고 보관, 주문 이행, 재고·운송·반품 관리, 맞춤 조립 및 포장, 핵심 부품 수리, 당일 배송 등의 서비스가 제공됨
- 현재 UPS는 날로 증가하는 유럽의 B2B 및 B2C 고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계약물류 분야를 확장하고 있음
- 아울러 상기와 같은 물류시설 투자는 UPS가 고객사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유럽 물류솔루션 제공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

자료 : www.supplychain247.com, 2015.1.24.

김은우 전문연구원 (☎ 02-2105-2828, hisgrace@kmi.re.kr)

4) 크레펠트 5천 m<sup>2</sup>, 부츠바흐 7천 m<sup>2</sup>, 펜로 8천 5백 m<sup>2</sup>.

## □ GAC Samudera, 인도네시아에 콜드체인 물류센터 개소

- 인도네시아 물류업체인 GAC Samudera가 자카르타 동쪽으로 30km 떨어진 Bekasi 지역에 인도네시아 최초로 CO<sub>2</sub> 냉각장치를 이용한 콜드체인 물류센터를 건립했음
  - 새로운 물류센터에서 사용하는 CO<sub>2</sub> 냉각장치는 에너지 소비가 높고 유해한 암모니아와 같은 기존의 일반적인 냉매 사용방식과 비교해 에너지 효율이 높으며 친환경적인 기술로 평가받고 있음
- 물류센터는 식품, 의료 및 제약 산업이 요구하고 있는 엄격한 품질 및 위생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
  - 콜드체인 시설은 시공 방법, 바닥재, 선적 시스템과 같은 요소들에서 국제 기준을 만족하고 있는데 -25°C에서 5°C까지 온도조절이 가능한 6개의 독립된 보관 공간과 0°C에서 8°C까지 온도조절이 가능한 1개의 냉장창고를 보유하고 있음
  - 각각의 콜드체인용 보관 공간은 항균 패널로 구분되어 있고, 이중 선반 시스템을 통해 표준 팔레트를 6,000개 이상 보관할 수 있는 대규모의 저장 시설을 갖추고 있음
  - 그 밖에 제품별 전용 처리구역과 고객이용구역, 사무 공간 등을 갖추고 있으며 해충 관리 시스템, 주 7일 24시간 상시적인 전력 공급 시스템 등 콜드체인을 위한 완벽한 운영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
  - 콜드체인 물류센터는 소형 트럭부터 40피트 컨테이너 운송 차량까지 거의 모든 종류의 운송 차량이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총 12개의 도크(dock)를 통해 제품의 선적과 하역이 상시적으로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음
- GAC Samudera는 기존 물류센터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최고의 콜드체인 물류센터로 발전시킬 계획임
  - GAC Samudera의 Hari Krishnan 사장은 인도네시아 찌카랑(Cikarang) 지역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최고 수준의 물류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실시간 화물 추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등 최고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음
  - 새로운 콜드체인 물류센터에서는 인도네시아 고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유통 시설은 물론, 축적된 통합 공급망 관리 경험과 지식 등을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

자료 : [www.gac.com](http://www.gac.com), 2015.1.8.

이홍원 연구원 (☎ 02-2105-2897, [hongwon@kmi.re.kr](mailto:hongwon@kmi.re.kr))

## 물류시장동향

## □ 터키, 아제르바이잔에 카스피해 운송 위한 합작기업 설립 제안

- 터키가 아제르바이잔 정부에 카스피해를 통한 해송운송의 체계화와 개선을 위해 합작기업 설립을 제안함
  - 현재 건설 중에 있는 바쿠 -트빌리시-카르스 철도라인 완성시, 카스피해를 통한 해송운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
  - 바쿠-트빌리시-카르스 철도는 조지아-아제르-터키 정부간 협정에 의해 건설되고 있음
- 터키측은 주주참여 수준의 합작기업 설립 준비는 되어있음
  - 이에 대한 결정은 2015년 말쯤 정확히 내려질 것으로 보임
- 한편 이 합작기업 설립 계획에 대해 카자흐스탄, 투르크메니스탄, 아프가니스탄, 파키스탄, 인도가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

자료 : www.portnews.ru, 2015.01.12.

이하림 연구원 (☎ 02-2105-2954, harimyi@kmi.re.kr)

## □ 페루, 5개 항만 개발위해 5억 6천 9백만 달러 투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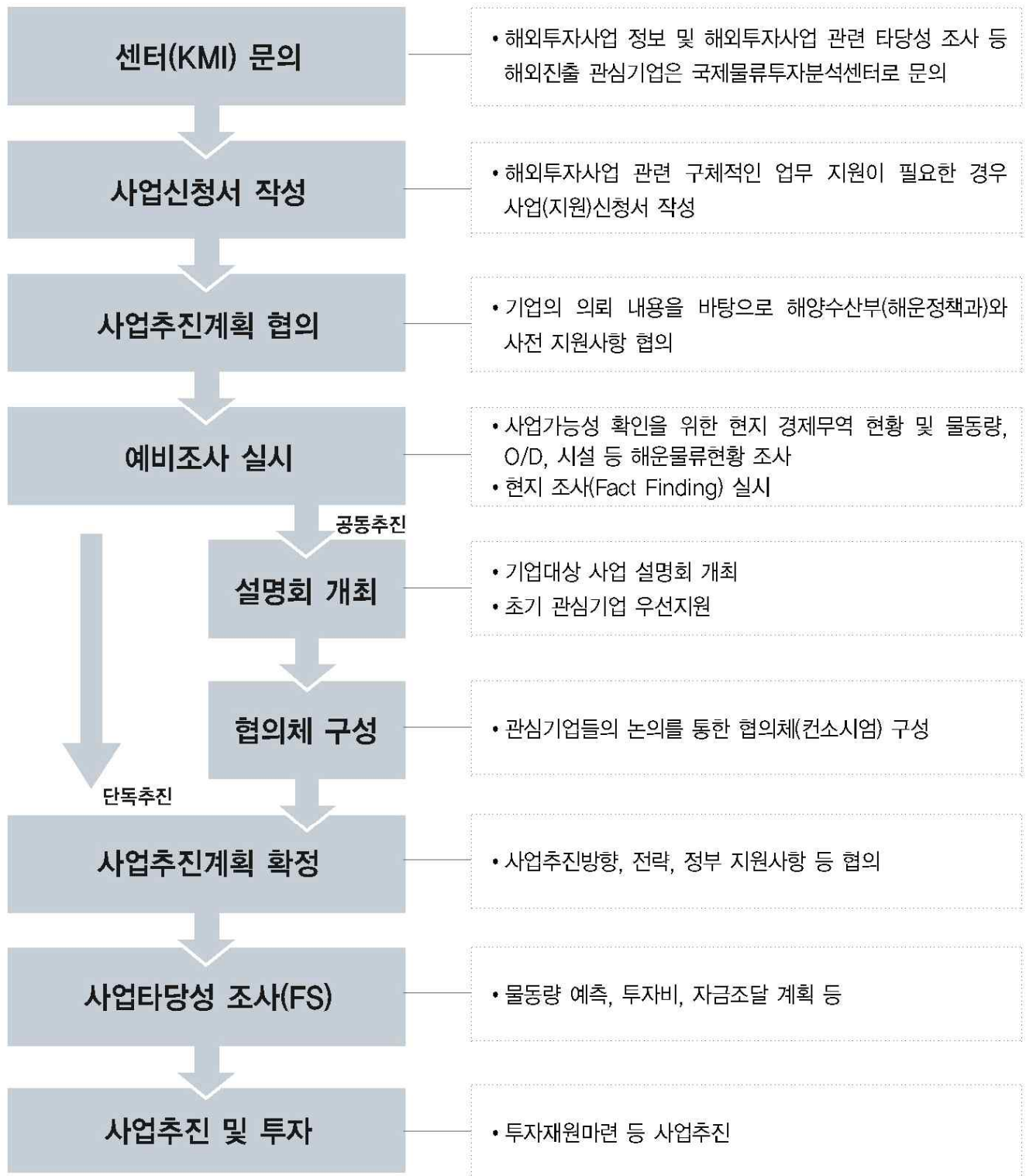
- 페루 항만공사는 항만의 병목 현상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5억 6천 9백만 달러를 투자하여 항만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힘
  - 개발 대상 항만은 Ilo, San Juan de Marcona, Salaverry, Pucallpa, Iquitos 항만임
- 현지 투자 은행인 Credicop는 국가 항만의 투자가 2022년 까지 총 11억 1천만 달러가 될 것으로 기대함
  - 주요 항만개발 프로젝트에는 현 Callao 항만 APM 터미널의 Paita의 이전·확장 뿐만 아니라, Pisco와 Yurimaguas 항만의 현대화 계획이 포함됨

자료 : www.portfinanceinternational.com, 2015.01.15.

김주혜 연구원 (☎ 02-2105-4985, joohye915@kmi.re.kr)



## [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]



\* 기초타당성 조사(실비 부담), 정부간 협상, 투자사업 관련 정보 및 기초 자료 제공